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4호 [루계 제23361호] 주제100 (2011)년 2월 13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을 이룩하자 2.16 경축 백두산 밀영 결의 대회 진행

[삼지연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결의대회가 12일 우서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전개되었다.

백두산밀영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정치원로이시며 불세출의 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흡모와 신뢰심으로 차넘치고 있었다.

밀영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를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또한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김영춘동지, 주상성동지, 김정각동지, 최봉해동지, 김평해동지와 당, 무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봉해동지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통해 우리 인민이 승리의 길을 범함없이 이어가는 불굴의 기상과 혁명적脾韌을 안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난 령도력으로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혁사에 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승의 혁명무력을 기우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여 올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조선의 스스터운 100

년시기총회를 축하하게 되는 을해에 대교조

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 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오며 강조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땅으로, 선군혁명위업의 향도적 령도를 강화발전시키나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이 오늘의 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며 당원들과 군인들이 올해 공동사업과 김칠로동계급의 편지에 호응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대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이며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제1부 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대통운을 높이 모신것은 김일성조선의 대통운이었으며 선군조선의 강성번영과 인류자비위업의 끝은 미래를 기약해준 특기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박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발한 험난한 눈길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산에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칭송하는 만민의 환호성 하늘땅을 진감한다

승업한 정일봉의 기상을 안고 사나운 광풍을 헤여잡으며 거연히 서 있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서리꽃들은 피어서 눈속에 웃고 벌들도 내려앉아 꿈을 지킨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따스한 봄빛이 흘러 든다.

선군조선은 영원한 봄을 주시고 후손만대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신 어버이 수령님과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속에 드겁게 암아보는 2월의 봄.

추억의 물을 열고 2월의 봄언더에 올라서면 혁명의 1세들이 펼쳐 올렸던 《백두광명성 만세!》의 환호성을 고이 간직한 정일봉의 어센 모습이 승업하고 안겨오고 고향집을 조용히 감돌며 울리면 어머님의 자장가소리를 심고 사시장월 쉬엄 없이 흐르는 소수주의 유정한 물소리가 정답게 들려온다.

위대한 선군태양으로 찬란히 솟아오르시여 시대와 인류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불세출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과 궁지를 안고 우리는 김일성同志의 끝없는 행운의 봄,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봄을 궁지높이 노래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맘보가 있습니다.』

한희로운 새봄을 알리는듯 황홀한 은빛세계를 장엄히 펼친 백두밀영의 자그마한 귀를집에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백두광명성이 찬란히 솟아올랐다.

『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

『상금리 강산에 밝은 빛 뿐이며 솟아난 백두광명성 만세!』…

서로 부동켜 앙고 밀림이 떠나갈 듯 환호를 울리고 누를길 없는 경정을 터치며 거목들에 다합없는

민족의 대통운, 조선의

칭송의 글발을 아로새기던 그날의 환회를 그려보는 우리 마음은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끌없이 달리고있다.

백두광명성이 탄생하신 뜻깊은 그날 백두산은 얼마나 이름다운 정서의 바다, 경정의 바다를 펼쳐놓았던가?

민족의 영광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자 백두의 산세들도 신비한 지저김소리를 바탕래로 실어보내며 2월의 봄을 축복하였고 망망한 백두의 천리수해는 아름다운 서리꽃을 구름처럼 펴워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드리웠다.

백두산의 정기를 한몸에 지니고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불멸의 그 존함을 물에 떠면 우리의 마음은 해는 바다마냥 끌없이 설레이고 향 같아지며 따스롭고 자애로운 절세위인의 영상을 우려를 때면 대야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부풀어오른다.

봉남산의 맹세를 다지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장장 수십 성상 김일성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펼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혼례로 올려온 천관명령도의 길은 몇천몇만리이며 그 나날은 쓰으신 업적 그 얼마인가.

위대한 번역과 사변으로 가득찬 1970년대, 장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로 아로새겨진 1980년대, 조국앞에 출연한 시련이 닥쳐왔던 1990년대, 강성대국건설대전이 격렬하게 벌어진 2000년대는 천제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날대기이다.

영원히 잊을수 없다.

『사회주의종말』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이리저리 달려드는 제국주의 무리들을 선군의 철뢰로 짓뭉개버리시며 시련의 눈보라를 헤쳐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눈물겨운 고난의 그 자유자축을.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종대철학을 짜증난군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며 눈내리는 추운 겨울에도, 비녀리는 여름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로 조국수호의 전선길을 이어가셨다.

언제인가년초부터 온 한해 전선길을 쉬임없이 걸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산악같이 일떠세워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암이오는 사변들이 다 계단으로 일어나게 한 무한대한 원동력이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어버이 수령님과 함께 계시였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 수령님 그대로 인민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

누구나 걸을수 있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이는,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뿐蒿하고 헤치신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이 있어 남들같으면 다시는 영솟아날수 없는 최악의 시련과 고난앞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두려움 모르고 신심드높이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은것 아니라.

장구한 인류역사에는 조국과 민족에로 가슴 불태운 사람들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하지만 그 전설들을 다 할친다 해도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민족의 영원한 번역과 인민의 창다운 복을 지키고 가꾸어 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현신의 력사, 승리의 역사에 비길수 없다.

오직 당을 믿고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보람듯이 새우시려고 오늘도 비가 오나 둑이 나오니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2012년을 향한 대고조의 승리를 마련하기 위해 동네 면책, 서차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의 애국현신의 장정은 혼연일체의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로 조국수호의 전선길을 이어가셨다.

언제인가년초부터 온 한해 전선길을 쉬임없이 걸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산악같이 일떠세워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암이오는 사변들이 다 계단으로 일어나게 한 무한대한 원동력이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어버이 수령님과 함께 계시였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 수령님 그대로 인민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

누구나 걸을수 있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이는,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뿐蒿하고 헤치신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이 있어 남들같으면 다시는 영솟아날수 없는 최악의 시련과 고난앞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두려움 모르고 신심드높이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은것 아니라.

장구한 인류역사에는 조국과 민족에로 가슴 불태운 사람들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하지만 그 전설들을 다 할친다 해도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민족의 영원한 번역과 인민의 창다운 복을 지키고 가꾸어 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현신의 력사, 승리의 역사에 비길수 없다.

오직 당을 믿고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보람듯이 새우시려고 오늘도 비가 오나 둑이 나오니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 신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암아오실 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놀자리

잡고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그렇다.

인민 생활향상대전 군속에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리상이 활짝 펴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희세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계속혁명의 위대한 승리이다.

김정일동지는 저 하늘의 태양이라고, 21세기는 김정일동지의 세기로 빛 날 것 이라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영원한 축복속에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안고있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이 태양의 점으로 대하마냥 굽이 헤쳐오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

영광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놀자리

잡고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그는 여기에 올라 저 불개 태오르는 해돋이를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더 굳게 다지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올라 저 불개 태오르는 해돋이를 볼 때마다 위대한 혁명의 성산 백두산!

온 누리를 밝히는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며 선군의 가치를 이 땅에 강성대국의 새날을 앞당겨갈 혁사의 의지를 펴려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인민은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혁명의 난국을 백두의 담력, 선군의 보검으로 타개해나가시며

에는 백두산장군이 신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두렵지 않으며 어버이 수령님을 따라서 시작한 혁명장군님 따라서 기어이 승리하리라는 철석같은 신념이 용침처럼 끊어번진다.

내 조국을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불폐의 강국으로 빛내여주는 천세의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받드는 곳에서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 펼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정일봉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친다.

2월의 불빛 흐르는 태양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이여,

민족의 대통을 암아온 2월의 봄,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봄과 더불어 길이길이 빛나라!

본사기자 황명희



태양의 성지 백두산 밀영고향집으로 끌없이 흐르는 답사행군 대오

— 백두산 밀영 혁명 전적지에서 —

본사기자 전성남 쪽음

영원히 울려퍼질 《광명성찬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현신에 대한 뜨거운 추억이 흐르고 그이께서 쌓아온 백두밀영고향집에 대한 한마음은 청송이 한껏 넘쳐나는 내 조국강산에 불멸의 송가가 풀없이 울려펴진다.

백두 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블은 굽이쳐 흐르는데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혁명인가 문무충호 겸비하니 모두 다 우리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을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에 뒤흔든다

만민이 회색의 위인을 끌없이 흡모하여 부르는 위인찬가를 심장에 새길수록 김정일동자는 시대를 이끄는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품어갖추었을지며 시대와 역사앞에 세기적인 업적을 드러보아도 우리 장군님의 혁명과 찬란한 미래가 실려온다.

정녕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이의 혁명적대고조의 정녕입니다.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믿고 그이께서 쌓아온 백두밀영고향집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들썩인다.

고향집에 새겨진 거창한 창조의 령도를 믿고 그이께서 쌓아온 백두밀영고향집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들썩인다.

영광성은 우리 당의 력사로 돌아온다. 그 이름 불러보면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이의 혁명적대고조의 정녕입니다.

그이께서는 그이의 혁명적대고조의 정녕입니다.

아버지 수령님의 승리한 영상이

우리에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봉 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안겨온다.

김일봉

새해 첫 진군길에 울리는 천만군민의 승리의 행진가

【평양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2월명절을 맞으며 혁명적 대고조로 비약하는 조국땅에 전인민 적진군가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로동신문』에는 노래 『승리의 길』이 1면에 실려 온 나라를 격동시켰다. 『조선인민군』, 『민주조선』, 『청년전위』 신문의 첫호들에도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신심드높이 가꿔라』,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게재되어 천만의 심장을 높뛰게 하였다.

김일성조선의 100년대를 빛나게 총括하고 통성번영의 새로운 100년대에 내달리기 위한 혁사의 분수령에서 우리 당이 풀려준 신념의 노래들은 일심의 혁명대로에 최후승리의 신념을 북돋아주고 계속혁명의 철리를 세겨주는 강성 대국건설의 전군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이 노래들을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시작한 주체혁명의 업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올해 충공격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으로 동계급이 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최신식설비를 장비된 평양야당 공장과 신의주영에 군인편직공장 등 편직공업판리국 산하단위들에서 현지생산적양이 일어나 판리국적인 첫달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증성하였다.

집단적혁신으로 새기준, 새기록을 들파해나가는 김정숙평양제사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열의를 최대한

혁명의 힘과 함께 투쟁의 노래들로 힘을 더해온 우리 군과 민족에게는 저열란으로 증기압을 보장하여 생산활성화의 물파구를 열어놓은 평양기초식품공장과 각종 당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돌격전에서 혁신창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초부터 현지지도강행군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승리의 길』과 같은 시대의 노래들이 총공격전의 주제가, 계속 혁신의 산을 으로 온 나라에 메아리치게 하시였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과 남포 유리병 공장, 평안북도의 광장들, 태안식료공장,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신의 강행군에 무한히 고무된 인민의 심장은 하나의 신념으로 고동쳤다.

미나리현 혁명의 길에 흘린 피 붉은 기에 있고 승리의 천만리우에 영광의 자속이 있다는 노래를 높이 부르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의 총공격전에 산악들이 멀쳐 나섰다.

나라의 전기사정이 의연히 긴장하고 원료, 자재들이 부족하지만 혁명의 전군가가 풀려펴지는 곳마다에서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올해 충공격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으로 동계급이 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무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베풀이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제4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로운 조작기구를 도입하여 갈수기에도 전력생산을 증가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 있다.

대홍단군에서는 종소형발전설비

들에 대한 기술개조사업을 벌여 한

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양과 맞먹는 전기를 더 얻고 있다.

우리의 힘은 당시의 두리에 천만이

뭉친 힘이라는 신념의 노래를

았고 금속공업부문으로 동계급이 질

단적혁신을 일으켜 첫달전투를 훌

히숙한 힘으로 청진에서 청진을

석탄공업성으로 첫달 석탄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안주, 선천구역 탄광들은 비롯하

여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서부지구에서 체굴조건이

좋은 탄단위에 힘을 더해 석

탄증산의 힘을 일으키고 있다.

석탄공업성으로 첫달 석탄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청진에서 청진을

석탄공업성으로 첫달 석탄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청진에서 청진을

석탄공업성으로 첫달 석탄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청진에서 청진을

석탄공업성으로 첫달 석탄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청진에서 청진을

석탄공업성으로 첫달 석탄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월전투목표의 50%를 한주일동안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의 한길을 신실드로이 걸어갈 신념의 노래는 전력생산기지들에서 더욱 격조높이 울려나왔다.

현시기 전력증산의 중요성을 그 어느때보다 깊이 자각한 각지 전력 생산자들은 『신설드로이 가리비』 노래로 심장을 불태우며 발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첫달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억 2 600만 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수풍, 위원, 장차장, 청원, 서두수, 허현강, 장진강, 부천강발전소, 강계청발전소 등 수력발전관리국

산하 발전소로 동계급이 1월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리고 있다.

제4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제30군정년 1호,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새해의 전력생산

계획을 1.11%로 완수하였다.

고있다.

철도수송전사들이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판을 지켜선 영예를 얻고 5. 18무사고전시전초기초

파운드의 불길높이 걸어갈 신념을 암고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면한 새해농사

차비에 톨력을 집중하고 있다.

승리의 전군가가 울려펴지는 경제

전설전투장들에도 제침을 밟고 멀

나서면 천리도 지척이라는 자벽강생

의 혁명적기상이 나래치고 있다.

기계공업식적으로 1월에

제작된 전기기계를

</div

남남협조의 확대 발전은 시대의 요구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약탈이 없는 세계에서 공동의 번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인류의 한 걸 같은 지향이다. 그러나 인류의 이 꿈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를 훑고 있는 경제위기는 나라들 사이, 지역들 사이의 호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나라들 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오늘의 도전들에 대처하여 새 세대가 자주적 발전과 경제 적인 영을 이룩해 나가자면 남남협조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블록별로 가담나라들,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성의 기지밀에 굽게 단결하여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지배와 예속의 날은 국제질서를 따스하고 자주권과 평등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하며 집단적 자력생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적극 발전시켜 다같이 부강번영을 이루어나야 한다.』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약탈의 불평등한 국제질서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다.

낡고 불평등한 국제경제질서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발전된 서방나라들이 저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 국제경제질서를 짐으로 하여 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착취, 약탈과 관련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책동은 낡고 불평등한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그를 통하여 전 세계를 신식민지화하려는 반역사적 행위이다.

서방나라들에 폭리를 주는 낡고 불평등한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 운을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것은 새 세기 인류공동의 임무이며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집단적 자력생생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미 이룩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권을 고수할 수 있다.

남남협조를 발전시켜 경제적 자립을 이루하는 것은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세의 간섭통제에 대처 할 수 있는 국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오늘날 서방열강들은 런합하여 착취와 약탈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반세 자주의 기치밑에 집단적 자력생생의 원칙에서 지역적 협조를 강화하고 경제적 통합을 실현해나갈 것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방나라들에 의거하지 않고 남남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나간다면 낡고 불평등한 국제경제질서는 자연히 유형 무질서로 지게 될 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와 의견을 듣는다면 서방나라들로부터 받은 경제적 압박을 비우는 과정이며 그것은 새 세대 세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서방나라들이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체의 힘으로 엄마들이 살아갈 수 있고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새 세대에 자원경쟁 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주요자원지대에 위치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의 인권과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정치적지위와

의 목소리가 힘 있게 울려나오고 있다. 현시기 남남협조는 다양한 적이면서도 폭넓고 심도있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남남협조가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그것도 소규모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고수할 수 있다.

남남협조를 강화하여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건설을 촉진하며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의지의 파시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남남협조에 결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공동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것은 자주주의 시대적 변화에 부합된다.

남남협조가 자연발생적으로 가거나 라 지역적, 대륙적 기구들을 통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추세로 되고 있다. 새 세대에 들어 아프리카나라들이 아프리카통일 기구를 개편하여 아프리카동맹을 대체로 단합하고 협력하여 아프리카동맹을 해나가고 있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단합하고 협력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약탈, 협력하여 낡고 불평등한 국제경제적 속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수 있게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인종, 언어, 문화, 신앙, 사회제도 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력사적 차이와 발전

지향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들은 지난 시기 외래침략자들의 지배로 인해 유언과 함께 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후

시민적 풍토의 후파를 가지고 사회적 전보와 문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주체적 지향이 매우 강하며 서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의 중요성과 실천적의지를 깨닫고

고 호상 협력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여러 국제회의들에서는 남남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남남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발전도상나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해 준다.

오늘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정치적지위와

단체 자력생생, 국제적 협조정신을 발양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 다목적 및 지역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남남협조를 강화하여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건설을 촉진하며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의지의 파시로 된다.

남남협조는 남남협조에 결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공동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것은 자주주의 시대적 변화에 부합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일관한 대외정책으로 들어가고 추진시켜 나가며 남남협조를 제도화, 기구화하는 과정을 선행시켜 그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남남협조는 남남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위한 대외정책으로 들어가고 추진시켜 나가며 남남협조를 제도화, 기구화하는 과정을 선행시켜 그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아메리카공동체가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대체하여 공동행동으로 국제적 협조판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부대 조건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통제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세워진 공동전략과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 나라 신문, 잡지 특집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특집하였다.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 모니터』 3월부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그이께서 대동강파수종합운동장과 9·27 꽃봉오리를 현지지도하고 웅진한 사업을 모색하고 올해나고 있는 것은 자주주의 시대적 변화에 부합된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그이께서 장군님께서 자신의 생신날인 9월 9일에 출동한 꽃봉오리를 현지지도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을 위한 정성이다.』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대중을 스승으로 숨겨 하며 자신을 인민의 아들, 인민의 충복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을 위한 정성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제르체』 7월 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인민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르체』 7월호는 『승리의 기치』 2월호는 『승리의 기치를 높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제로 장군님에 경애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을 위한 정성이다.

『네팔신문』 『제르체』 7월 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인민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신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을 소탈하게 대하신다. 그이께서 지나고 계시는 무한한 소박성, 소탈성은 아름다운 조선민족의 아들의 위치에 놓으시고 인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신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을 소탈하게 대하신다. 그이께서 지나고 계시는 무한한 소박성, 소탈성은 아름다운 조선민족의 아들의 위치에 놓으시고 인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신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을 소탈하게 대하신다. 그이께서 지나고 계시는 무한한 소박성, 소탈